

# 빈약한 공공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질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세계 하위권... 사서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용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사서 ·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있는가? 있지만 없다. 도서관이란 건물은 있는데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리에게 도서관(공공이든, 대학이나 학교, 심지어 일부 전문도서관까지도)은 '공부방'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공부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작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인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적극적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이란 나라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거대하고 잘 짜여진 도서관망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국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한 자신감보다는 회의가 먼저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성장일변도 정책에 내몰린 현실

이러한 도서관 현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무엇보다도 도서관인들에게 있다. 도서관을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해도 몇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다. 우선 도대체 이 사회나 정부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현실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회는 온통 물질적 풍요에 정신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이리하고도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점점 더 도서관에 주어지는 관심은 줄어들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작은 관심이나마 있는지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는 의도적으로 가벼움에 처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 속에서 한 사회, 한 시대의 문화창달이나 정보축적이나 평생교육이나 하는 고상한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 도서관이 외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가볍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너무 무겁고, 접근할 필요성이 거의

**우리나라에 도서관은 과연 있는가.**

**사회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도서관은 관심의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한 공공도서관이 국내 신간**

**발행량의 20% 정도밖에 새로**

**입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공도서관의**

**현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적극적**

**관심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없는 곳이다.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서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단편적이고 물질중심적 구조로 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필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적하지는 못한다. 대신 빈약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더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제기와 유사하게도, 공공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극명한 표출이 바로 도서대여점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점과 도서관을 찾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읽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결국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장서의 수준은 과연 어떤가. 《95년도 전국공공도서관현황》(문화체육부)에 따르면 1994년 현재 전국 317개 공공도서관의 총장서는 1,116만여 책이고 연간 증가책수는 170만여 책이다. 1개관당 연간 약 5,700여 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도 국내발행 도서가 총 2만9천여종이라고 하니, 단순 계산으로도 1개 공공도서관은 연간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약 20% 정도밖에 새로



공공도서관은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장이다. 사진은 종로도서관 열람실.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도대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가서 보면 보고 싶은 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드는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다. 도서관의 힘은 장서라고 하는데, 우리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질적인 수준은 검토할 여지도 없이 그저 양적 수준으로만 보아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 적극적 관심만이 희망

이렇게 도서관 장서가 빈약한 이유는 최근 발표된 연구(박인웅 외,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구입의 한단계> : 도서관, 1995년 가을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원인으로 첫째, 자료수집과정에서 수서정책의 부재에 따른 자료선정과 구입의 무질서 둘째, 사서들의 장서에 대한 방관적 자세 셋째, 구입과정에서 전문사서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외압의 작용 넷째, 영세한 자료구입비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영세한 자료구입비 문제는 장서구성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1994년 자료구입비는 1개관 평균 약 3,800만원이다).

매년 많은 책이 발행되지만 적은 자료구입비로는 쓸 만한 자료를 충분하게 구할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하는 일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책을 구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증받은 자료마저도 과연 쓸 만한 책인가 여부를 가릴 여유도 없이 장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쓸모없는 장서가 없다 보니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고, 이용자들이 외면하다 보니 도서관은 그저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적은 지원에 장서의 질은 계속 빈약해지고...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것이 도서관 문제의 본질이다.

빈약한 장서와 볼 것이 없다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공공도서관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최소한 출판계에서 도서관의 구입능력을 믿고 양서를 출판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책으로 채워져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주어진 각오로 한번쯤 찾아가 검토해 봐주기를 바란다. 그러한 적극적인 관심만이 우리 공공도서관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정보가 자본인 시대에 수천년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현명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도서관 사서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 책임은 사서들에게 있는 것이다. 사서들에게 분발을 기대해 본다. ❖